

이재용 회장, 첫 출장지 UAE... '제2 중동붐' 정조준

〈삼성전자〉

〈아랍에미리트〉

이 회장, 글로벌 행보 본격 재개
정기 인사 확인 후 출장길 올라
모하메드 대통령 포럼 참석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승진 후 첫 출장지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남집, JY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며 '제2의 중동붐'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UAE로 출장을 떠났다. 당초 취임 후 첫 출장지로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중동을 최종 선택한 것. 2023년도 정기 인사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급하게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UAE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하메드 대통령이 매년 연말마다 글로벌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비공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른바 'JY 네트워크'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형인 할리파 빈 자이드 전 UAE 대통령이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왼쪽)이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함께 화성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후 왕세제 신분으로 국정을 이끌어온 인물로, 2019년에는 UAE에 이 회장을 초청하고 직후 삼성전자화성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 5월 할리파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는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당시 이 회장이 이례적으로 UAE 대사관을 찾아 조문을 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이 회장으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특히 최근 중동에서 '오일머

니'를 활용한 미래 개발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이 회장이 모하메드 대통령과 새로운 사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UAE는 최근 다양한 신규 건설 사업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UAE는 내년부터 두바이섬과 초호화 주거지를 포함한 '2040 두바이 마스터 플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두바이 마스터 플랜은 두바이 관광지와 주거 공간 등을 재정비하는 것뿐 아

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비롯해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도로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UAE판 '네오시티'인 셈이다.

마스다르시티 계획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6000㎡ 규모에 청정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으겠다는 계획, 사업 비용만 2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삼성물산은 일찌감치 두바이에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부르즈칼리파 시공이 대표적, 삼성엔지니어링도 정유 플랜트 사업 등으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도 지난해 연말에도 중동을 찾는 등 현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왔다.

앞서 이 회장은 최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함께 네오시티에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러닝터널 공사를 수주한 바 있으며,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21

년 기준 글로벌 건설사 중 13위에 올라 있다. 상위 업체 중 8곳이 중국, 해외 매출 기준으로는 8위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도 11위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중동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2020년보다 2021년 매출을 25%나 늘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에 '스마트 건설' 역량이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는 상황, 삼성전자를 계열사로 둔 삼성물산의 경쟁력도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편 인텔 팻 겔싱어 CEO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재용 회장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될지도 관심사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중동 출장을 끝내고 국내로 돌아와 겔싱어 CEO를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지난 5월에도 국내에서 만난 바 있다. IDM 업계 1위를 다투는 기업 최고 경영자가 연달아 만나는 일이 이례적인 만큼 그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반도체 다운턴과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 협력 확대는 물론 Arm 인수 논의까지 추측이 난무하는 모습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모비스, 내년 CES서 PBV 신기술 선보인다

'Hi! For Better Tomorrow!' 주제
사업방향·탄소중립 전략 등 강조

현대모비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가 업그레이드된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3에 새로운 PBV 융합 신기술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할 기회로 보고 역대 가장 넓은 면적인 780㎡에 전시 공간을 조성했다. 주제는 'Hi! For Better Tomorrow!'(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로, 양산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현장 미디어 발표회를 통해 미래 사업 방향과 탄소 중립 전략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모비스는 차량 기동(필라)에 첨단 시스템을 탑재했다. 자율주행 센서와 독립 구동 및 조향이 가능한 e-코너 모듈, MR 디스플레이 등으로, 더욱



현대모비스가 CES2023에 공개할 엠비전 TO

사용자 요구를 충족한 PBV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적용한 모델이 새로운 PBV인 엠비전 TO와 HI다.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브랜드 엠비전에, TO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Toward) 의미를, HI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Humanity)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엠비전 TO는 전동화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다. 차량의 전, 후측면에 위치하는 4개의 기동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와 e-코너 모듈, MR(혼합현실)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을 융합했다. 엠비전 TO 내부에는 PBV에 걸맞게 접거나 회전이 가능한 좌석이

탑재된다.

엠비전 HI는 레저와 휴식, 아웃도어 목적에 맞게 개발된 PBV이다. 차량 유리 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영화 감상이나 인터넷 쇼핑 등을 할 수 있다. 엠비전 HI에는 시선을 컴퓨터 마우스처럼 활용하는 원거리 조작 기술이 적용돼 별다른 조작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스위블 디스플레이와 신개념 후륜 서스펜션은 양산 가능한 신기술로, CES 2023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그밖에도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미래 콕핏 통합솔루션(MVICS 4.0)과 LED 그릴 라이팅, 홀로그래프 AR-HUD 등 신기술 19종도 함께 소개하고 신규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미디어 발표회를 통해 미래 사업과 기술 개발 방향,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등을 소개하기로 했다. 별도 'HR존'을 운영하며 글로벌 우수 인재도 찾아나서기로 했다.

/김재용 기자



SK가스 평택기지 임직원들이 지난 4일 28년 연속 무재해 기록 달성에 맞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가스

SK가스, 평택기지 '28년 연속 무재해' 달성

전사 차원 'SHE 경영' 실천 주요

SK가스의 LPG수입기지인 평택기지가 4일 24시를 기해 '28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SK가스는 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인 '안전'임을 인식하고 'SHE 경영'을 실천해 나갈 전망이다.

SK가스 평택기지는 프로판 14만톤, 부탄 6만톤 등 총 20만톤의 LPG를 저장할 수 있으며, 국내 수도권 및 중부 지방과 중국 등 해외에도 LPG를 공급하며 국내외 LPG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94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상해, 화재, 폭발 등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며 '무재해 28개년' 기록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영진의 'Safety first' 경영리더십과 기지에 구축돼 있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온 결과다.

SK가스는 'Global Top Tier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자율안전문화 구축 ▲구성원 안전 역량 강화 ▲시스템 고도화 ▲법규 변화 대응 등 4개 영역에 대한 'SHE(Safety, Health, E

nvironment)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세부 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먼저, SK가스는 CEO 직속 전사 SHE위원회와 SHE추진단을 구성해 SHE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등 SHE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SHE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해 사업장의 SHE 경영관리 일원화 기반을 구축하며 전사적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했다.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책임자가 주관하는 일일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기지 구성원 모두가 설비,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동참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설비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적시에 설비 교체와 유지보수를 실시해 시설 노후화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SK가스 윤병석 사장은 평택기지 구성원에게 보내는 무재해 달성 축하 메시지를 통해 "원칙을 실천하는 안정적인 기지 운영으로 영속적 무재해·무사고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테이블에 공청기 '쑥'... LG전자, 14일 퓨리케어 신제품 출시

LG전자가 테이블 속으로 들어간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LG전자는 14일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한 공기청정기로, 방마다 사용할 수 있게 인테리어와 편의성을 고려해 개발한 융복합 제품이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

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단에는 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 원통형 디자인으로, 원형과 트랙형 두가지 타입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다. 색상은 오브제컬렉션 3종에 테이블과 필터커버까지 조합해 18종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편의 기능도 더했다. 하단에는 무드 조명, 상단에는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등을 무선충전할 수 있게 했다.

청정 성능은 그대로 이어간다. ▲바람을 내보내는 팬을 UVLED로 살균해 유해세균을 99.99% 제거하는 UV나노(UVnano) 기능 ▲항바이러스·항균 효과는 물론 극초미세먼지를 비롯해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등 5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공기청정 필터를 탑재했다.

/김재용 기자